

현대로템 철도부문, 세계로 GO! GO! 아시아, 미주 등 전 세계 36개국 진출

현대로템 철도부문은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전 세계 36개국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7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현대로템은 글로벌 종합중공업 기업으로서 발돋움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확보를 위한 성장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로템은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철도차량 분야에서 차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일반 전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해외수주에서 나아가 2층 전동차, 트램, 고속철 등 다양한 차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2층 전동차 512칸 납품 사업을 약 8천894억원에 수주하며 호주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바 있다.

이는 현대로템이 수출에 성공한 첫 2층 전동차로서 옵션 물량 136칸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현대로템은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업함과 함께 사전 설계작업을 진행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호주에서 해외 첫 2층 전동차를 수주함에 따라 해외 2층 전동차 시장에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트램 역시 현대로템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차종이다.

현대로템은 2014년 8월 터키 이즈미르 트램 190칸을 837억원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로 트램 수주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 386억원 규모의 터키 안탈리아 트램 90칸을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동유럽을 비롯한 트램 수요가 높은 해외시장에서의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

현대로템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고속철의 수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KTX-산천, KTX-산천II, SRT 등 국산 고속철을 개발하며 쌓은 기술력과

비결을 바탕으로 해외 고속철 사업을 지속해서 공략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대로템은 기관사 없이 운행이 가능한 무인운전 차량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노선 길이 기준 세계 무인운전 차량 시장에서 5위권의 점유율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 캐나다 밴쿠버 전동차 40칸, 2007년 상파울루 4호선 전동차 174칸, 2012년 홍콩 SCL 전동차 333칸, 2013년 인도 델리 RS10 전동차 504칸, 2016년 터키 이스탄불 마흐뭇베이 전동차 300칸, 2018년 대만 도원시 녹선 무인경전철 80칸 등 국내외에서 무인운전 차량을 2천 칸 이상 수주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외 철도 유지보수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유지보수 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대로템은 올해 6월 800억원 규모의 브라질 전동차 320칸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동차 90칸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 중이고 지난해 11월에는 2027년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2016년 현대로템이 수주한 유지보수 사업 중 최대 규모 사업인 1천 870억원 규모의 뉴질랜드 웰링턴 전동차 166칸 및 객차 25칸 유지보수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2010년 터키 마르마라이 전동차, 2012년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등 다양한 해외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글로벌 철도 종합 기업으로서 가진 기술력과 비결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수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❶

